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찬	송 28장	다	같	이
교	독 24번	다	같	이
신	앙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41장	다	같	이
기	도	이	창	걸
성	경 요6:35-51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6.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찬	송 356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호선) 유동(이창걸)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양교회 24시간 릴레이 기도제목

○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영국총신(유학목사님들) 특강이 잘 이루어지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8월 4일-15일)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세계선교정보연구원 13기 훈련이 잘 마치도록
인터넷의 단비편지가 잘 준비되며,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파키스탄 단기선교 여행팀이 은혜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8월 2-30)
(형제:정신호, 황반석, 자매:이우진, 조현정, 김미나)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반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포기를 위해서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낙태가 사라지고 미혼모가 줄어들도록
음란의 영들이 사라지며, 윤락여성들이 갱생하도록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 1:1-3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 1:4-14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 2:1-4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 2:5-18 구원의 창시자
- 2:14-18 고난에도 견디는 아들의 탁월성
- 3:1-6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 3:7-19 강박한 마음에 대한 경고와 순종에 대한 권고
- 4:1-13 믿음으로 얻은 안식
- 4:14-16 대제사장이신 예수
- 5:1-11 제사장의 자격
- 5:12-14 배반에 대한 경고

6:1-8 신앙 성숙의 필요성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히5:11-14에서 언급한 신앙의 초보적인 상태를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은 유대교로부터 떠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못한다. 오직 “ 회개” ἀφέντες(아펜테스) “ 울부짖다, 용서하다, 버리다, 떠나다” 만이 살길임을 알려준다.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사용되었다(마4:20, 22, 마22:22, 막1:18, 20). 즉 회개는 제자들과 같이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을 말한다.

2절 **세례들과 안수와** βαπτισμῶν(뵘티스몬) “ 세례, 씻음”은 기독교의 ‘ 세례’ βαπτισμα(뵘티스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롬6:4, 엠4:5, 골2:12) 유대교의 일반적인 정결예식을 말한다(레11-15장). 이러한 예식을 세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논란이 많았으며(요3:25, 행19:1-5) 처음 개종한 사람들은 세례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 안수” ἐπιθέσεως(에피데세오스)도 이미 구약시대부터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다(민8:10, 신34:9). 신약시대에도 새로운 개종자나(행8:17) 전도 사역자(딤후4:14)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행8:17-19) 하기도 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제일 관심이 있는 죽음, 심판, 부활은 유대교 교리조직 속에서도 발견되는 종말론적 교리들이다(단7:9, 10, 단12:2, 눅20:37, 38, 행23:8).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 완전” τελειότητα(텔레이오테타)는 원어 본문 상에는 1절에 포함되어 있다.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5.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 / 본문 : 요 20:1-18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기준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로부터 계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였고, 지금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이며 즉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께서 고쳐주신 후 예수를 따르며 봉사했으며(막16:9, 눅8:2),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라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지켜보았던 여인입니다(요19:25). 이 여인은 돌이 옮겨간 것을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제자들?)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3-4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세심한 기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 자신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제자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5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날 곳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로 보아 그리고 그의 정확한 증언으로 보아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무덤에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6-7절)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자신도 이런 것을 미리 염두 해 두고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본 것을 증언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 증거가 됩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가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당시의 최고 군대인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지켜졌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들에게 술을 먹여 졸게 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보는 것 등입니다. 이 때의 문제는 예수의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한 로마 군병의 책임론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마포 옷 예수님의 수의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몸이 증발해서 빠져나온 것처럼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마포가 진짜 물증이 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체를 훔쳐 가는 도둑이 어떻게 이와 같이 수의를 벗겨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시체를 훔쳐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수의를 벗겨놓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주(2003.7.13) 설교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